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젠더 관점에서 풀어보는 도시재생과 여성참여

도시에 ‘재생바람’이 불고 있다. 도시재생이란 노후화된 지역을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특성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핵심은 ‘주민참여’로 ‘주민은 누구이며’, ‘누가 참여를 주도 하는지’ 등 주민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여성들의 경험이 도시재생사업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며, ‘여성참여’에 대해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 해보는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기존에 수행한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을 분석·검토한 후 자문을 통해 이슈를 발굴하고 개선점을 찾는 것에서 시작했다.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2017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전지역 3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여성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연구 및 시민 참여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주민참여 활성화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역 자원조사 필요해



김학실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도시재생대학’에
여성참여자 역량 및 젠더
관점 강화과정 필요해



김병운
대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주도적 참여 위해
여성에게 명확한 역할
부여할 필요 있어



박경수
대덕구 모니터단

단순히 높은 참여율이
아니라 주체적 참여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최명주
동구 모니터단

다양한 위치의 여성이
참여하기 위해서 소규모
공동체 발굴 및 육성해야



문성남
유성구 모니터단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여성 마을활동가
육성해야



심준영
전북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강사

지난 12월 17일에는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구 절차 및 방법, 현장 모니터링 활동 내용 및 제안 사항까지 전반적인 활동결과를 공유했다. 자세한 연구 및 현장 모니터링 내용은 ‘2018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여성참여 활성화방안 모색’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세종연구원 홈페이지(www.dsi.re.kr) 연구원발간물에서 확인 가능함

현장 모니터링의 모든 것 A to Z

현장 모니터링은 시민모니터단이 직접 추진 실무자 및 여성주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제안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올해 현장 모니터링을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두 차례에 걸친 교육 과정과 '도시재생'과 '젠더' 분야로 나눠 두 번의 사업지역별 정책 멘토링을 실시함으로써 모니터단의 역량강화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현장 모니터링 추진 일정 및 방법



‘여성 참여형 젠더 거버넌스’ 구성 및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3개 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해 모니터단이 제안한 사항들 중 공통적인 키워드를 뽑아 분류 및 분석을 실시했다. 특히 마지막 ‘젠더 친화적인 추진체계 구축’은 도시재생의 주민참여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강조했던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과 교차되는 부분이다. 즉, 성인지 관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여성참여의 실현과 확산을 위해서는 ‘여성 참여형 젠더 거버넌스’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이해 및 관심 제고

사업의 목표, 취지, 변화되는 점 등 구체적인 청사진 보여줌으로써 관심을 끌어내 참여로 연결할 필요 있음



여성참여의 가치 인정

여성의 참여를 단순한 ‘봉사활동’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으로 여성의 참여행위 촉진시켜야 함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여성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이해관계에 놓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 요구됨



여성주민의 여건을 배려한 참여환경 조성

여성의 직업 유무, 연령 등 참여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장소, 다양한 시간대에 참여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방안 모색해야 함

참여방식의 다양화 및 경험 공유

소단위의 다양한 공동체 발굴 및 육성, 여성 마을활동가 발굴 및 참여 기회 제공,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주민이나 여성 마을활동가의 경험공유를 위한 자리 마련 등이 중요함



젠더 친화적인 추진체계 구축

젠더 관점에서 컨설팅 가능한 전문가의 참여 및 여성주민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사업 이해관계자들의 성인지적 이해를 돕고 여성들의 ‘주도적 참여’ 이끌어내야 함

제4회 젠더 콜로키움 뜻깊은 사고에 주름을 잡다
20대 여성들의 연애, 결혼 그리고 자아정체성

12월 11일, 덕성여자대학교 김은정 교수의 '한국 20대 여성의 이성교제 및 성행동을 통해서 본 자아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2018년 마지막 젠더 콜로키움이 열렸다. 김 교수는 20대 여성들의 성, 사랑, 이성 교제 등을 둘러싼 행동양식과 가치관에 초점을 두어 어떻게 자아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있는 지에 주목했다. 참여자들은 임신, 출산에 있어서 성적 욕망을 통제하는 것은 삶의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 변화해 가고 있는 20대 여성의 섹슈얼리티 관련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20대 여성들, 결혼 및 가족 형성이라는 성인기 과업을 이루기 어려워진 사회에서 결혼과 분리된 연애 하고 있어”

“성적 주체로서, 또는 관계의 주동자로서 여성의 모습은 변화했으나, 재생산 영역(임신, 출산)에서는 소극적이면서 가부장적 태도 보여”

김은정_덕성여자대학교 교수



대전세종여성가족정책포럼 전문가 토론회
2018년 여성·가족 이슈를 돌아보고, 2019년을 그리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12월 21일, 대전세종여성가족정책포럼의 마지막 만남을 기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18년 여성·가족분야 연구 및 사업을 돌아보고 2019년 여성·가족 이슈 및 발전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인재 발굴·양성, 역량강화에 초점 맞춰야

김경희(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여성·가족 이슈를 구체화 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 마련됐으면

김계숙(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장)

젠더폭력 대응방안, 성인식 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연계해 고민해야

배순희(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젠더 이슈를 가족, 돌봄 안에서 풀어 볼 필요 있어

차성란(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교수)

젠더폭력 관련 이슈를 발굴하고 고민하는 연구 중요해

정현주(대전YWCA성폭력상담소장)

청년 정책 수립 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단계 선행되길 바라

김지현(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 책임)

세종, 젠더 이슈에 대해 하드웨어 구축이 아닌 내용 구성에 집중해야

정종미(사단법인 세종여성 대표)

여성 노인노동과 여성 감정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졌으면

엄숙희(대화동근로자종합복지회관 국장)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이 더 있었으면

김나영(대전여성단체협의회장)

여성들의 정책 제안이 행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업 필요해

황은주(대전시여성구의회 의원)